

‘노부스콰르텟’이 선사하는 체코의 낭만

제10회 정기연주회·전국투어 'Slavic'
오는 27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젊은 현악사중주단이자 세계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노부스콰르텟'이 제10회 정기연주회로 광주 무대에 선다.

유·스퀘어 문화관은 오는 27일 오후 7시30분 금호아트홀에서 노부스콰르텟의 제10회 정기연주회이자 전국투어 공연을 마련한다.

비올리스트 김규현 합류이후 첫 정기연주회여서 관심을 모은다. '슬라빅'(Slavic)을 주제로 하는 이날 연주회는 체코를 대표하는 작곡가 드보르작, 스메타나, 야나체크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체코를 대표하는 작곡가인 드보르작의 현악사중주 7번, 야나체크 1번 '크로이체 소나타', 스메타나의 가장 사랑받는 현악사중주곡 '나의 생애로부터'를 통해 슬라브의 깊은 감성을 그려낼 예정이다.

관객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드보르작의 초기 작품과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자주 연주되지 않는 야나체크의 현악사중주 명곡을 소개하는 것 또한 의미가 있다.

현재 노부스콰르텟은 세계 무대에서 활발한 음반녹음으로 주목을 모으고 있다.

클래식 음반업계의 깊은 불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간 여섯 장의 음반녹음은 한국 실내악 단으로 유일무이한 행보. 그들의 인터내셔널 음



세계 음악계의 호평을 받으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젊은 현악사중주단 '노부스콰르텟'이 오는 27일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제10회 정기연주회 및 전국투어 음악회를 갖는다. /©jino park

반은 세계 음악계의 호평을 받으며 각종 차트를 휩쓸었으며 첼리스트 오펔리 가이아르, 피아니스트 미셸 달베르토 등 거장 연주자들과의 협업 녹음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 발매된 '베르크의 서정 모음곡, 슈베르트의 죽음과 소녀' 음반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 '금주의 음반'에 선정되며

그 음악성과 실력을 모두 인정받았다.

한편, 노부스콰르텟은 올해로 결성 13년차를 맞았으며 김재영(바이올린), 김영욱(바이올린), 김규현(비올라), 문용휘(첼로)로 구성된 젊은 현악사중주단이다.

티켓은 전석 5만원(학생 4만원). 8세 이상 관람 가능. /정겨울 기자

‘본질로의 회귀’ 광주 출신 조술 조각전

21일까지 무등갤러리

조각의 본질을 찾기 위해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에서 수학하고 온 광주 출신 조각가 조술의 개인전이 열린다.

조술 작가는 오는 21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에 위치한 무등갤러리에서 조각전을 갖는다.

'본질로의 회귀'를 주제로 하는 이 전시에선 조각가의 신작 조각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그가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인간 내면의 감정을 충실하게 담아낸 테라코타부터 여체의 아름다움을 한껏 살려낸 마블 조각에 LED 빛을 가미시킨 독특한 형태까지 다채롭게 구성됐다.

변길현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은 "조술 작가의 작품은 우리에게 조각의 근본, 아름다움의 근원에 대해 생각하게 해준다"며 "전시의 제목을 작가가 직접 '본질로의 회귀'라 지은 것은 조각의 본질이 조술 작가의 특성임을 작가 또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다. 조각의 본질은 조형의 아름다움이고 그는 한국의 현대 조각가 중 조각의 본질에 충실한 대표적 작가"라고 평했다.

한편, 조술 작가는 광주 출신으로 전남대 예



조술 작 '민들레 흙씨디어'(위)와 '달빛의 기억'

술대학 미술학과 조소전공을 졸업하고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 마스-위구르 예술대학원 모뉴먼트-장식예술전공 졸업,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레핀 미술아카데미 조소과에서 공부했다. 광주시립미술관 양산동 창작스튜디오 1기 입주작가로 참여했으며, 현재는 한국미술협회원, 전국조각가협회원, 남도조각가협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겨울 기자

스크린으로 만나는 뮤지컬 '명성황후'

내달 4일 빛고을시민문화관

1995년 12월 초연 이래 지난 20여년간 대한민국 최고의 뮤지컬로 평가받는 뮤지컬 '명성황후'를 스크린으로 만나볼까.

광주문화재단 '썩 온 스크린'(SAC on Screen)은 다음달 4일 오후 7시30분 뮤지컬 '명성황후'를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상영한다.

'명성황후'는 탄탄한 구성과 연출력을 바탕으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대형 뮤지컬로, 지난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공연을 영상화한 것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뮤지컬로 호평 받았으며,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 공연, 미국 L.A, 캐나다 토론토 공연 등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국내외에서 대한민국 뮤지컬의 우수성을 마음껏 선보였다.

입장료 무료(선착순 500명). 인터넷 예약(문화N티켓 홈페이지 www.culture.go.kr/ticket에서 예약 및 모바일 발권. 문화N티켓에서 예약하면 예약자가 좌석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공연 상영 당일 0시부터 모바일발권이 가능하며, 7세 이상 관람 가능. /정겨울 기자

김연국의 **Tea** 이야기

<2> 茶로 좋은 인연들을 만나다

가슴 설레고 심장이 뛰던 시절 녹차 한 잔이면 마냥 행복했다

피천득 시인의 '인연'이란 수필이 있다. 그가 일본 유학 시절에 만난 '아사코'라는 여인과의 인연에 얽힌 아름다운 회상이 그려진 작품이다.

'어느 날 그는 지난날을 생각하며 아사코를 떠올린다. 열일곱이 되던 해 동경에서 유숙했던 주인집 딸, 아사코는 유난히 그를 따랐다. 그는 아사코가 작고 예쁜 '스위트 피' 꽃을 닮았다고 생각했다. 첫 만남 후 헤어질 때 아사코는 그의 목을 안고 뺨에 입을 맞췄다.

십 년이 지난 후 두 번째로 동경을 방문하면서 그는 아사코를 다시 만났다. 약간 서먹한 만남이었지만 아사코는 마치 목련꽃같이 청순하고 세련된 모습이었다. 마지막으로 그가 아사코를 만난 것은 그 후로 십여년이 흐른 뒤였는데, 시든 백합같이 초라한 아사코의 모습이었다. 약속도 없이 절만 몇 번씩 하고 헤어진 마지막 만남에 그는 아쉬움을 느꼈다.

그는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인연인 줄 알지 못하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아도 그것을 살리지 못하며, 현명한 사람은 옷자락만 스쳐도 인연을 살릴 줄 안다고 했다. 그리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육감을 지녀야 한다고 썼다.

정말 맞는 말이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있다. 또 인연인 줄은 알고 있지만 용기가 없어 다가가지 못해 기회를 놓치기도 한다. 그렇지만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알고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날마다 좋은 인연을 만들려고 하지는 못 할망정 끊지는 말아야 하지 않을까.

1984년 무렵, 경영자 연수과정 제19기 동기생 중 박영도란 이가 있었다. 예술의 거리에 그녀가 운영하던 동다원(전통차)이 있었다. 그녀는 항상 머리에 비녀를 꽂고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단아한 모습으로 우리를 맞았다. 웃는 얼굴로 차를 내려주던 그녀의 목련꽃 같았던 모습이

떠올라 가끔 나도 모르게 아련한 마음이 되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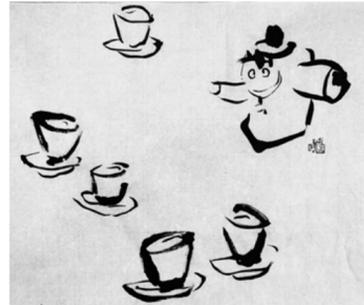
지금 돌이켜 생각해도 가슴 설레고 심장이 뛰는, 차에 대한 이미지가 내 안에 있었던 것 같다. 이따금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 밑바닥에서 나도 모르게 뜨거운 것이 용솟음쳐 올라오고 무척 행복해진다. 그때 나는 한창 문학에 관심이 있었고 세상에 호기심이 많았다. 감수성이 예민했기에 이러저런 책을 읽고 시나 수필 등을 썼다. 왠지 쓸쓸하고 외롭다고 느끼기도 했다.

라디오에서 흥겹거나 감미로운 대중가요가 흘러나오고 긴 머리로 분위기를 잡던 DJ가 다방을 지배하던 그런 시대는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갔다. 그 대신 예술의 거리에 국악이나 판소리가 실내를 휘감고 도는 전통 잡정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었다. 어쩌다 총장로에 나가면 다

방만큼이나 전통 찾집이 점점 많아져 갔다. 나는 그즈음 친구들이나 선배, 직장 동료들과 함께 그곳에서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냈다. 그때 전통 차는 녹차가 전부였고, 그것이 아니면 대용

차가 전부였던 것 같다. 그래도 그렇게 차를 마시고 쉬며 하루의 피곤을 씻어내곤 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 나는 차에 대한 상식이나 지식이 거의 없었다. 다만 녹차 잔 앞에 앉아 있으면 세상 그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었고 마냥 행복했다. 그때 남편 동료분이 성실하고 성격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셨다. 그래서 드디어 만나게 되었는데 차를 내리는 모습에 매혹돼서 결혼을 결정하게 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나중에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차를 접하고 난 후에 제일 큰 성과였다 는 생각이 들었다. /가은대례원장



삼화=담현전명옥



http://www.kukje9.co.kr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맛과 멋을 새롭게”
출장뷔페 전문외식산업

▶ 자매회사: 제사나라 062)527-0044/011-602-2278

- ▶ 야외 결혼식
- ▶ 칠순잔치
- ▶ 체육대회
- ▶ 야외회

☑ 국제외식산업(주) 문의.062)262-2278/011-602-2278